

## 비트코인 ETF 7월 순유입 분석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tcoin-etf-july-net-inflow-analysis-3>



이달 초 비트코인 ETF의 초기 시장 폭락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ETF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옵션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심의 끝에 승인된 비트코인 ETF는 출시 후 수요가 급증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시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가 준비 중이며 더 많은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거래를 간소화하여 초보자와 노련한 투자자 모두 쉽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비트코인 ETF 수익률의 롤러코스터](#)
- [7월 순유입 동향](#)
- [순유입 기록 경신](#)

## 비트코인 ETF 수익률의 롤러코스터

7월 비트코인 ETF는 월초 시장 폭락으로 인한 급락을 시작으로 큰 변동을 겪었으며, 월말에는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출시 직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수년이 걸렸던 비트코인 ETF는 유리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승인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포함한 더 많은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 7월 순유입 동향

6월 비트코인 ETF 순유입의 역동성은 특히 극적이었으며, 격동적인 마지막 주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순유입은 놀라울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과 씨름하면서 ETF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 초기에는 순유입액이 2100만 달러와 1200만 달러로 저조했지만, 이달 3일과 4일에는 순유입액이 각각 7300만 달러와 1억 2900만 달러에 달하며 눈에 띄는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단기간에 그쳤고, 5일과 6일에는 독일 정부의 압류 비트코인 청산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운트곡스의 해킹된 토큰 이전 등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이벤트와 맞물려 유출이 유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며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순유입 기록 경신

7월 초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트코인 ETF는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8일에는 순유입액이 1억 4,300만 달러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여 다음 날에는 2억 9,500만 달러, 2억 1,6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ETF는 몇 달 동안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유입을 달성하며 절실히 필요했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7월 9일 이후에는 유입액이 1억 4,735만 달러와 7,893만 달러로 다소 주춤했지만, 12일에는 3억 1,000만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기록하며 월간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유입 자금의 대부분은 1억 2천만 달러가 유입된 블랙록 ETF(IBIT)에 집중되었고, 펠디 ETF(FBTC)가 1억 1천 5백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RTF GBTC가 2천 3백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단 하루의 유출도 없이 총 10억 5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ETF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비슷한 상승 추세가 현재 58,059.6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저점에서 크게 회복된 가격입니다.